

發行人兼編輯人：李 萬 寧
 主 幹：李 丙 泰
 發 行 處：牛峯李氏大宗會 02)753-6340~1
 서울시 중구 무교동 25-1 원창빌딩 512호
 http://woobonglee2000.hihome.com
 印 刷 處：신오성기획인쇄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牛峯李氏大宗報

장학기금 모금 각 문중서 관심 많아

사직공문중(보령) 및 만성공 문중 천만원(약정),
 감찰공 용인 소중중 500만원 등 입금
한구 추진위원장 적극 협력 당부

2003년 10월, 만녕 대총회 회장 취임 당시 농촌 불우자녀 장학금 모금운동을 대총회 시책으로 전개하여 온 대총회는 2005년 9월 말 현재 소중문중과 일가들이 약정한 금액이 2억 6천 200만원에 이르렀다. 이중 입금된 금액은 142,000,000으로 일단계 모금액인 3억원이 목표연도까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구 장학기금 모금 추진위원장은 장학금 모금

에 협조해준 소중중 및 일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 협조를 당부했다. 9월말 현재 모금된 기금과 약정한 문중 및 일가는 다음과 같다.

장학기금 기금 약정 및 납부 현황

2005. 9. 30 현재(단위:원)

구 분	약정금액	납부금액	비 고
만녕(대총회 회장)	1억	50,000,000	평생회원
한구(대총회 부회장)	10,000,000	3,000,000	평생회원
학구(대총회 부회장)	1,000,000	1,000,000	특별회원
영범(대총회 부회장)	10,000,000	-	평생회원
병덕(대총회 부회장)	10,000,000	3,000,000	평생회원
청녕(대총회 부회장)	1,000,000	1,000,000	특별회원
병무(대총회 부회장)	10,000,000	10,000,000	평생회원
태녕(대총회 부회장)	10,000,000	-	평생회원
영범(대총회 부회장)	10,000,000	-	평생회원
창무(대총회 감사)	5,000,000	-	특별회원
범주(참판공 문중)	1,000,000	-	특별회원(대구)
사직공 보령문중	10,000,000	-	평생회원(회장:덕녕)
만성공 문중(청주)	10,000,000	-	평생회원(회장:김무)
감찰공 용인 소중중	5,000,000	5,000,000	평생회원(회장:원구)
세보편찬 기금	69,000,000	69,000,000	
계	262,000,000	142,000,000	
*병국(대총회중무위원)	1,000,000	500,000	특별회원 '05년도 결산 후 납부

전통문화를 재현한

'2005 강원 감영제'

역대 관찰사 가장행렬 이채·문중 농재공 등 세분도 모셔

강원도 감영제(監營) 우봉이씨 선조는 15세(祭)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강원도 감영제위원회 주최로 원주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 감영제는 원주시가 해마다 "치악제"로 치르던 문화행사로 명칭을 바꾸어 개최하게 된 것으로 이 행사는 마지막 날인 4월 5일 조선조 500년 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져오게 한 역대 관찰사 215명의 후손들을 초청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봉이씨 선조는 15세(祭)인 농재공(翽·1629~1690·原襄監司·315대)을 비롯하여 만경(16세·晩堅·1616~1717·375대 관찰사), 광정(20세·光正·1780~1850·474대 관찰사) 등 세분의 선조가 강원도 관찰사로 지냈다. 그런데 이 문화제는 치악산 산신제(무속), 산신대제(불교), 인형극, 향시 및 휘호대회 등 대체로운 행사를 해마다 개최한다고 하였다.



40여명이 참석한 선조묘 순례 일가와 며느리들이 일휴정(숙)공 묘소에서 한 때를 보냈다.(사진 : 재무)

대총회가 2003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가난한 농어촌일가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자는 장학금 모금운동을 전개한지 3년이 되었다. 그동안 일부 일가들은 대총회 사무실을 전세로 있으면서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었으나, 대총회가 부동산을 팔고 사는 업체도 아닐진데 그리 쉬운 일도 아니다. 대총회가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한 후 뜻있는 소중중을 비롯한 일가들이 이 뜻에 적극 호

응하여 그동안 약정된 금액까지 합치면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장학기금 약정 및 납부현황 참조)

교육은 백년대계를 약

계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기 재능과 노력으로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이 많은 문중

의미한 만남으로 그치고 있다. 이제 대총회가 전개하고자 하는 장학제도는 농촌 불우 어린이를 중심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최근 들어 자신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품안에 있을 때 꿈을 키워 주어 부모를 떠나서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의 기초를 닦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총회가 조성하는 기금은 작은 기금이지만 가난한 많은 어린이들이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부(富)의 재분배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모든 일가가 이해하여 동참의 기회를 나누었으면 한다. 丙

시론

장학기금 모금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속한다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이나 나라나 가장 훌륭한 분배정책은 교육이다. 그것은 부모는 사회 경쟁에서 밀려났더라도 그 자녀들에

에서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대총회는 자선이 없다고 보니 그저 형식적으로 일년에 총회라는 이름만으로 무

들만 노력하면 대학교의 등록금 마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나 가난한 농어촌 어린이들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도 어렵고 품안에

2004年度 定期總會 贊助金 一家名單

萬寧(대중회 회장)	1,200,000원
丙泰(대중회 사무총장)	100,000원
範卓(청장년회장)	200,000원
參判公派 參奉公 문중	200,000원
德寧(홍보/섭외 담당역)	100,000원
明俊(대중회 감사)	100,000원
昌茂(대중회 부회장)	200,000원
丙國(대중회 종무위원)	100,000원
牙山派 小宗中	100,000원
昇寧(대중회 종무위원)	100,000원
丙憲(대중회 종무위원)	100,000원
參判公派 閔慶宗中	100,000원
양범(사직공 보령)	100,000원
參判公派 義城 栗峴宗中	100,000원
丙吉(고문)	100,000원
秉茂(대중회 부회장)	1,000,000원
學九(대중회 부회장)	100,000원
景茂(참판공 문경)	200,000원
漢九(부회장)	300,000원
建寧(참판공 문경)	100,000원
丙七(대중회 고문)	100,000원
應劑公派 宗중	200,000원
牙山派 忠州 小宗會	100,000원
範根(부사공파 청원군)	100,000원
茂卓(대중회 종무위원)	100,000원
沃川永慕堂	100,000원
俊九(창백리공 문중 회장)	300,000원
丙穉(대사간 파주교하)	100,000원
昌茂(대중회 감사)	100,000원
秉九(감찰공 문중)	100,000원
총 계	5,900,000원

丙天(종무위원) 가훈 서예작품 5점 및 수필집 10권
축하화본 증정 일가
①萬寧(주) 회장
②秉茂(아세아그룹 회장)
③丙錫(주)JDC TEX 사장
④김계원 사장(이래원 꽃집)

2004년도 총회 개최·만녕 회장 재선임

임기 중 더욱 발전 있도록 노력 다짐



만녕 대중회 회장

2004년도를 마감하는 우봉이씨 대중회 총회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무궁화 홀에서 각 지역에서 온 250여 명의 일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는 임기가 만료된 회장을 2007년도 까지 대중회를 이끌어 나갈 회장 선출에서 만녕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출하였다.

총회는 먼저 시조공 묘소가 있는 경기도 장단군 소남면 마담동 북향 간좌(良坐)를 향해 시조 문경공(文景公) 묘소에 대한 망배(입례제배)에 이어 "우봉인이여 영원하라"(李茂原 詩)축문을 병태 사무총장이 낭독하였다. 이어 일년간 공적이 많은 연고행존부문(年高行尊部門)을 비롯하여 선조를 잘모신 위선 및 효행부문

의 일가와 스스로의 학행으로 공적을 남긴 옥천 영모당 회장 현무(玆茂) 일가를 비롯하여 종성군 문중 회장인 무용, 김포의 병현 일가, 참판공 문중 형무일가의 부인 성연숙 며느님, 참판공 문중의 병모일가 따님인 강순 양 등에게 시상이 있었다. 이어 만녕 회장은 인사에서 "졸지에 3년 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회장의 중책을 맡아 대중회 발전의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어느 새 임기를 마치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헌신 봉사할 새 회장을 선출하여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학기금 모금 추진위원장인 한구 대중회 부회장의 장학금 모금현황 보고를 한 후 명준 감사의 회계감사보고, 2005년도 예산안보고가 있었다. 회장단 선거는 임시의장으로 학구 대중회 부회장이 등단하여 "이번 우봉이씨대중회 임원개선 안건을 총회규약 제6조에 의거하여 그동안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재무담당역, 각 담당역, 종무위원 약간명, 감사 2명을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선임에 들어갔다.

학구 임시회장은 이어 "그동안 만녕 회장께서 대중회장으로 취임하신 후 대중회 발전을 위해 임기동안 헌신적으로 재산의 증식은 물론, 특히 어렵게 자라나는 農漁村 자녀를 돕기 위한 장학금 모금 사업과 지방 종중과의 유대강화 등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새 임원선임을 위해서 임원선출방법은 회장단과 종무위원회에서 신중히 논의해 앞으로 대중회를 이끌어 가실 회장을 다시 만녕 회장을 추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찬성해주시기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총회는 만장일치로 만녕 전 회장을 선임하였다.

총회는 당선회장 인사에 이어 회장단 및 종무위원, 인사소개 그리고 범탁 청장년회장 인사 및 임원소개 그리고 철형장 재담당역의 회장 및 대중회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그런데 이날 발표된 대중회 임원은 고문 6명, 부회장 9명, 종무위원 17명(2명은 후에 추가로 인명), 자문위원 14명(2명후에 추가로 임명)이다.

大宗會 任員(靑壯年會 包含) 地域委員 名單

*고덕체는 신임

- 고 문(6) 俊九, 丙七, 丙吉, 丙文, 泰寧, 世茂
- 명예회장 丙壽
- 회 장 萬寧
- 부회장(9) 學九, 漢九, 丙德, 丙爽, 丙天, 昇寧, 泰寧, 昌茂, 秉茂, 範瑞, 永範, 範卓
- 감 사 明俊, 昌茂
- 사무총장 丙泰
- 재무담당역 詰衡
- 기획담당역 宗茂
- 종무담당역 丙秀
- 홍보/섭외 담당역 龍茂
- 종무위원(17) 丙錫, 丙龍, 丙國, 丙憲, 丙秀, 丙鎬, 寅寧, 健寧, 根寧, 根衡, 吉雄, 德寧, 茂車, 範泰, 忠範, 丙賢, 丙權
- 자문위원(14) 丙朝, 丙濬, 丙珣, 淸寧, 德寧, 昌寧, 惠寧, 鎬茂, 茂學, 玆茂, 茂龍, 起淵, 成冠, 贊寧

- 청장년회
- 고 문 昌茂
- 회 장 範卓
- 부회장 忠範, 芳茂, 先寧, 萬寧
- 감 사 丙秀
- 총 무 茂俊
- 부총무 龍範
- 재 무 在茂
- 지역위원
- 경주·포항 成冠
- 의성 茂弼
- 대전·옥천 玆茂
- 청주·청원 承寧
- 보령·서천 應寧
- 평창·횡성 丙珉
- 용인 丙默
- 수원·화성 茂龍, 茂貞

- 김포·강화 玆寧, 茂潤
- 양평·광주 丙元
- 가평·춘천 桓茂, 茂榮
- 예산 茂春
- 서산 俊寧
- 대구·의성 範周
- 문경·점촌 同寧, 昌茂
- 연기·금산 漢茂
- 아산·은양 元寧, 仲茂
- 음성·이천 丙弘
- 횡성·제천 丙洙
- 천안 光茂
- 구리·남양주 茂錫

문중일에 솔선수범한 일가 공로패 수여

병현(김포·강화), 현무(옥천), 무용(수원), 성연숙(문경), 강순(의성)

이날 총회에서 문중일에 공로로 표창된 일가의 공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무(玆茂) 일가는 옥천 종중 및 영모당 회장으로 숭모사상이 돋보여 항상 일가간의 문중 사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 지역문중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특히 시조 문경공과 의렬공을 모신 영모당 선조

배향은 물론, 조상묘소치산에 앞장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하여 문중발전에 이바지하여 종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무용(茂龍):종성군공과 수원 종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숭모사상이 돋보여 恒常 종재의 증식은 물론, 선조숭모 문중사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

여 왔다.

특히 종중선조묘소를 치산하는 등 문중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종인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병현(丙玄) 일가는 1980년부터 김포·강화종회 부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숭모사상이 돋보여 항상 종재의 증식은 물론, 집성촌유지와 선조묘소공원화 사업에 일조하여 소

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앞장섰다.

특히 선조시향을 10년간이나 맡아 문중사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 종인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성연숙(성연숙):이 분은 참관공 문중 형부(亨茂) 부인으로 15년 전 남편이 산재(産災)사고로 거동을 못하자 집안

일을 도맡아 트럭 및 버스 운전기사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며 후승(厚承), 성용(晟溶) 등 두 아들까지 혼신을 다해 대학교를 졸업시키는 굳건한 모습에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열부(烈婦)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행적은 우리 문중 자손들에게도 자신과 긍지를 갖도록 한 며느리로서 그 공을 높이 치하하여 문중 일가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다.

강순(康舜):이 학생은 참관공 문중 병모(丙模)씨의 따님으로 부모가 오랜 병환으로 집안일을 돌보지 못하자, 가난한 살림속에서도 생계를 꾸려나가는 소녀가장의 깨끗한 모습에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효녀학생이라 칭찬하고 있다.

특히 이 효행소식은 한국문화방송사(MBC)에 까지 알려져 '러브 하우스'프로에서 57호로 선정되어 아름다운 집까지 지어 받았다.

이와 같은 효행은 우리 문중 자손들에게도 자신과 긍지를 갖도록 한 공을 높이 치하하여 문중 일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기에 이 패를 준다고 했다.



현무(영모당)회장이 영모당 관리와 선조 숭모사상이 높게 평가되어 대총회 회장으로 부터 공로패를 받았다.(대리 수상)



선조 숭모사상이 돋보여 일가들에게 모범을 보인 무용 종성군파 수원 종회장이 공로패를 받고 있다.



효행상을 받는 성연숙(참관공 문중 형무일가 부인)



이강순(병모씨 장녀) 부모가 오랜 병으로 생활 능력이 없자 소녀 가정으로 집안을 지켜간 공로를 치하하여 효행상을 받았다.(대리 참석)

존경하옵는 우봉이씨 대총회 고문님, 회장단 임원여러분, 그리고 종무 및 자문위원, 지역화사회 회장과 일가 여러분!

지난 총회에서 재선임의 영광을 주신 일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신의 가호가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평소 문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대총회 대소사에 참여하여 항상 협조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종중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년 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좁지에 중책을 맡아 대총회 발전에 업적을 남기지 못

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지역 종친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문중 종재(宗財)업무를 가일층 활발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선대의 무연고 묘소 중 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묘소를 선정(鎬俊·忠翼公·아산시 영인면 소재)하여 일차로 새롭게 치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대총회 총회에서 가

결하여 시행된 대총회 장학회 기금모금을 위한 장학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문중별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받았습니다.

오늘 본인은 이 자리

증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일가들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종친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문중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그 동안 시작하여 진행 중인 장학사업입니다. 그 동안 대총회 임원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평생회원을 약정해주신 사직공 보령문중과 청주 만성공 문중을

비롯하여 개인적으로는 9명이 약정 또는 기금 분납일가가 4명 그리고 특별회원 3명 등 여러분들이 기금을 내 주셨습니다.

이 장학사업은 대총회 회원뿐만 아니라 전 우봉이씨 일가가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인재양성의 기반이 되어 훌륭한 재부들을 키워나가는契機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 協力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宗中 여러분들의 家庭과 하시는 일에 發展과 幸福이 항상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재 취임인사로 대신합니다.

2004년 총회에서 만녕회장 재선임
-지역 소중증 활성화·장학기금 모금사업 등에 노력-

를 다시 맡으면서 3년간의 회장직 경험을 토대로 대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6명을 비롯하여 부회장 12명, 종무위원 및 자문위원 30명 등으로 대총회 발전에 관심 깊은 일가로

집안의 전통과 선조를 모시는 일은 집안의 번영을 위한 실천의 약속이다.

청장년회 선조묘소 순례

아름다운 집안의 전통을 잇고 선조를 모시는 일은 나의 아들딸과 집안의 번영을 위한 약속이라는 케치프레스를 내걸고 해마다 청장년회(회장:법탁)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조 묘 순례행사가 지난 5월 14일(토) 40여 명의 일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날 아세아 타워에서 출발한 일행은 용인시 이

동면에 위치한 감찰공 선대(도암 묘소)묘소를 중심으로 모셔진 귀락당 만성(16세·1659~1722·세자빈객)공 묘소를 비롯하여 만회당 유경(14세·1586~1663·관결사), 일휴정 숙(15세·1626~1663·우의정), 도암공재(17세·1680~1746·좌·우찬성), 농재공삼(15세·1629~1690·이조판서), 두계병도(25세·

1896~1989·문학박사) 등 10여 선조 묘소를 참배하였다.

이날 이 행사를 위해 찬조해주신 일가는 다음과 같다.

법탁(청장년회 회장) 200,000원, 병무(아세아 그룹 회장) 300,000원, 대종회 500,000원, 만녕(대종회 회장) 140,000원, 학구(대종회 부회장) 100,000원, 태녕(대종회 자문위원) 100,000원, 건

녕(대종회 종무위원) 100,000원, 병호(대종회 종무위원) 100,000원, 선녕(청장년회 부회장) 100,000원, 종무(대종회 기획담당역)타올 50매, 청장년회 타올 50매 계 1,600,000원

감찰공 묘소에서 낙엽치우기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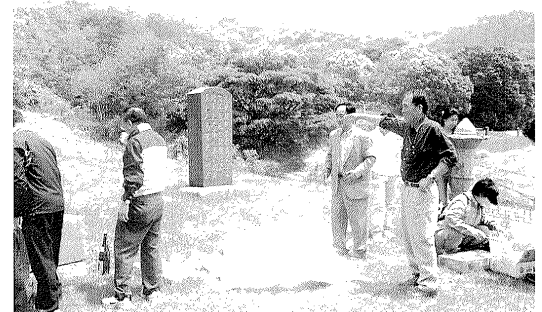
지난 3월 5일 고양시 감찰공묘소 낙엽치우기 행사가 10여명의 일가들이 참석하여 실시되었다. 참석일가 학구, 상구, 병태, 병준, 병수, 건녕, 현녕, 준녕, 덕녕, 무준, 종무 참석



용인시 이동면 선조묘소를 찾은 일가들



우리나라 근세 한시문학 중 시문학의 대가로 알려졌던 우선공(상작)의 묘소를 청장년회장과 병수, 도녕, 강호, 병철, 용범, 무준, 선녕 임원들이 벌초하고 참배했다. 묘소는 경기도 연천군 관인면 사정리에 있다.



양관 대제학을 두번씩이나 지낸 도암(재) 묘소에서 일가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있다.(사진 : 재무)



집안에 대한 전통을 찾고 가풍을 잇도록 지원하는 일가들(사진 : 재무)



우봉인의 긍지와 가문의 전통은 일가간의 마음과 마음에서 실천된다.(두계박사 묘소 앞에서)

우봉이씨 문중은 고려 명종 때 문하시중을 지낸 공정(公靖·三韓壁上功臣·峇城府院君)을 시조로 하여, 역사상의 인물은 고려사에서 찾을 수 있는 시조 문경공과 의렬공 자성(義烈公·子晟·? ~1251·門下侍郎 平章事), 그리고 조선조에 들어서서 상신(相臣) 1명, 문형(文衡) 1명, 문과급제 40명을 낸 명문집안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조선조 중기 때 성리학의 대가인 도암(陶菴·17세·緯)공이 문중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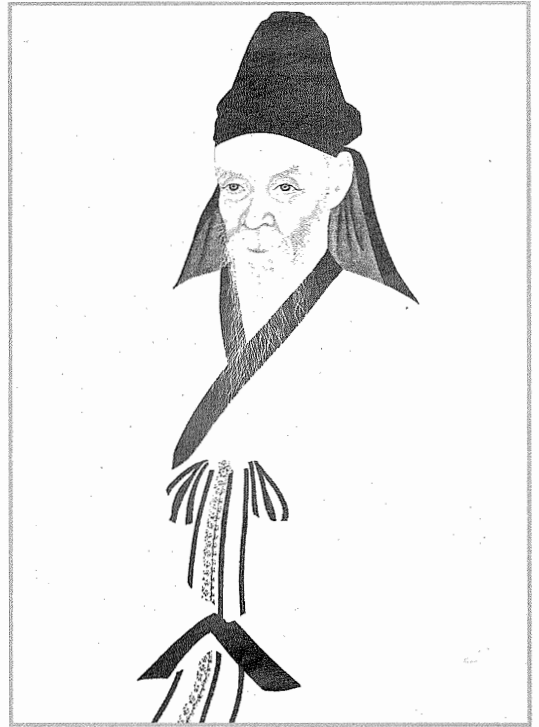
도암공은 영조(英祖) 때 노론(老論)의 한 사람으로, 양관 대제학(兩館大提學)을 두 차례나 지낸 인물로, 그의 7대조 승녕(承寧)공은 호당(湖堂·

금의 특명으로 공부하던 곳, 독서당이라고도 칭함)을 거쳐 호조판서에, 5대조 보진암(葆眞菴·之信)공은 선조 때 황해도 관찰사, 증조부 만회당(晩悔堂·有謙)공은 사계(沙溪·金長生)의 문인(門人)으로서 학행으로 벼슬길에 올라 호조참의, 조부 일휴정(逸休亭 翻·忠獻公)공은 우암(尤庵·宋時烈)의 문인으로서 숙종 때 우의정, 증조부 타우(打愚·翔·文穆公)공은 대사헌과 이조참판을, 다섯째 증조부 농재(農齋 翊)공은 이조판서에까지 이르렀다.

도암 공은 중부(仲父)인 귀락당 만성(歸樂堂·晩成·吏曹·兵曹判書)공이 경종조 때 신임사화(辛壬士禍·왕위의 계승 문제로 노론과 소론 사이에 당쟁으로 일어난 췌

丑·壬寅에 일어난 사화)로 노론 4대신(老論의 金昌集, 李健命, 李頤命, 趙泰采 등)이 처형될 때 연유대어 옥사(獄死)하자, 당시 예조참관의 벼슬을 버리고 은퇴하고 강원도 인제에 들어가 학문에만 전념하다가 영조가 즉위하면서 다시 기용되었다.

도암 공의 문집은 50권을 비롯하여 『四禮便覽』(사례편람), 『朱子語類抄節』(주자어류초절), 『近思



도암공 존영(국립박물관 소장)

귀락당·만회당·일휴정공 등 많은 재상 배출
용인 도암 선조
 문중 내력
 도암공의 「사례편람」은 지금까지 적용해

(趙重海), 정존겸(鄭存謙), 영의정 윤급(尹汲) 등이 있다. (묘소: 용인시 이동면 천리·신도비)
 또한 도암 공의 손자 화천(華泉·采·文敬)공은 선조 때 호조참관을 지냈는데, 일찍이 지례현감(知禮縣監)으로 있을 때 그 고장의 처음으로 벼를 싣고 농사에 큰 도움을 주며 그 고장 사람들이 그 벼를 가리켜 이공재(李公堤)라고 불렀다는 일화가 남아 있다. 또 화천 공의 아들인 소화(小華·光文·文簡公)공은 현종 때 이조판서를 거쳐 우찬성에 이르렀는데, 도암 공의 『四禮便覽』을 삼대 손인 그가 수원 유수로 있을 때 간행한 것이다. 그의 아우 광정(光正·文貞公)공은 현종 때 이조판서를 거쳐 우찬성에 이르렀는데, 도암 공의 『四禮便覽』을 삼대 손인 그가 수원 유수로 있을 때 간행한 것이다. 그의 아우 광정(光正·文貞公)공은 현종 때 이조판서를 거쳐 우찬성에 이르렀는데, 도암 공의 『四禮便覽』을 삼대 손인 그가 수원 유수로 있을 때 간행한 것이다. 그의 아우 광정(光正·文貞公)공은 현종 때 이조판서를 거쳐 우찬성에 이르렀는데, 도암 공의 『四禮便覽』을 삼대 손인 그가 수원 유수로 있을 때 간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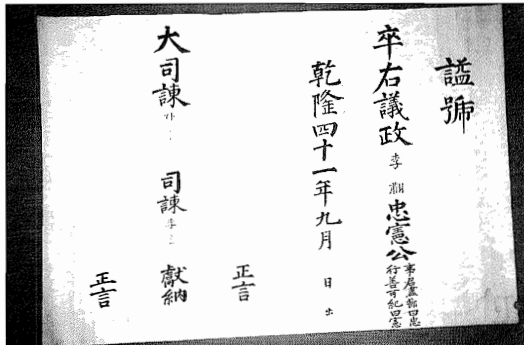
영의정 (묘소: 용인시 이동면 천리·신도비)
 일휴정 숙(逸休亭·翻·15세·1626~1688) 대사헌, 이조판서, 우의정, (묘소: 용인시 이동면 천리)
 도정공 핵(翻·17세·돈녕도정·증 이조판서)
 진사공 만창(進士·晩昌·16세·증 이조판서)
 도암공 재(陶菴·緯·17세·1680~1746) 시호 문정(文正), 대제학, 좌·우찬성, 성리학자 저서 사례편람 등 다수(묘소: 용인시 향토유적 제35호)

홍헌공(弘軒·濟遠·18세·수원부사·대사간·호조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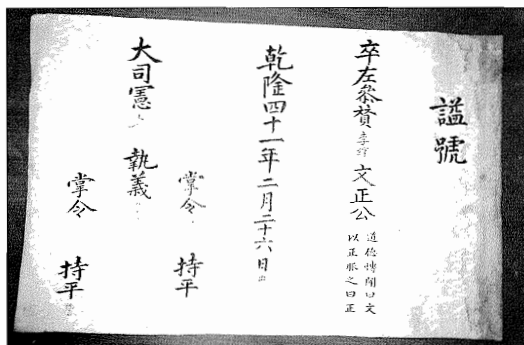
일휴정 배위 경주박씨(逸休亭 翻·배위 경주박씨)묘소: 용인시 이동면 천리 노곡

농재공(農齋·翔·15세·1629~1690) 시호 문정(文貞) 충정어사, 이조판서, 증 좌찬성 (묘소: 용인시 이동면 천리 노루실)

두계 병도(斗溪 丙燾·25세·1896~1989) 일본 와세다 대학 사회학과 및 사학과 졸업,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동 대학원장,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 문교부 장관, 민족문화추진회 이사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서울시문화상, 인촌문화상 수상



일휴정(15세·숙·1626~1682)공이 충헌(忠憲)의 시호를 1777년(정조1년) 9월에 받았다.



도암선생이 돌아가신 후 1777년(정조 1년)에 시호를 받았다.



도암(17세·1680~1746)공이 문정(文正)의 시호를 정조1년(1777년) 2월 25일에 받은 교지 원본(증손 중부씨 소장)

尋源』(근사심원), 『檢身錄』(검신록)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특히 『四禮便覽』은 근세에 대표적인 명저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四禮便覽』은 冠婚喪祭(관혼상제)의 사례(四禮)에 대하여 역대 학자들의 여러 학설을 바로 잡고 그 의식절차를 소상히 밝힌 것으로, 이 예법은 당시 우리 일반 사회 생활에 깊이 동화되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지금까지도 상사(喪事)나 제례(祭禮)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도암 공은 만년에 벼슬을 버리고 은퇴하여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그의 문하생 가운데 이름난 이로서는 옥문(鹿門·任聖周)공을 비롯하여 오원(吳璦), 정실(鄭實), 조중희

이날 선조묘소 순례묘소 선조 내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귀락당 만성(歸樂堂 晩成·16세·1659~1722)

시호 충숙(忠肅), 부제학, 대사헌, 성균관 대사성, 형조·이조·예조·공조·병조판서

동지경연사, 세자빈객, 증 좌찬성(묘소: 용인시 이동면 천리 사동)

만회당 유겸(晩悔堂·有謙 14세·1586~1663) 공 관결사, 호조참의, 증

2005년도 대종회 임원회비 납부 내용

2005. 9. 30 현재(단위:원)

납부자명	금 액	비 고
만녕(회 장)	3,000,000	
한구(부 회장)	1,200,000	
학구(부 회장)	1,200,000	
병덕(부 회장)	1,200,000	
병천(부 회장)	1,200,000	
병석(부 회장)	1,200,000	
순녕(부 회장)	1,200,000	
태녕(부 회장)	1,200,000	
창무(부 회장)	1,200,000	
병무(부 회장)	1,200,000	
영범(부 회장)	1,200,000	
범서(부 회장)	1,200,000	
범탁(부 회장)	600,000	(청장년회장)
창무(감 사)	600,000	
병현(중무위원)	600,000	
병석(중무위원)	600,000	
병국(중무위원)	600,000	
병덕(중무위원)	1,200,000	'04결산 후 납부포함
병용(중무위원)	300,000	(분납)
덕녕(중무위원)	300,000	(분납)
범태(중무위원)	600,000	
창녕(자문위원)	300,000	
무룡(자문위원)	300,000	
계	22,200,000원	

*덕녕(중무위원) 300,000 [분납본 결산('05) 후 납부]
 현무(자문위원) 300,000 [결산('05) 후 납부]

2005년도 대종회 결산내용

2004. 10. 1~2005. 9. 30

세 입 지 부		세 출 지 부	
과 목	세 입	과 목	세 출
전 기 이 월	92,101,350	총 회 경 비	6,385,830
총 회 회 비	2,910,000	보 수	21,000,000
찬 조 금	5,900,000	출 동 비	630,000
회 장 단 회 비	16,200,000	총 회 장 비	-
중무위원회비	6,000,000	소 모 품 비	780,050
수 입 이 자	2,817,987	통 신 비	854,570
광고료수입	500,000	회 의 비	460,800
잡 수 입	440,000	관 리 비	6,058,470
세 보 대 금	1,838,800	경 대 비	4,143,300
		조 조 비	2,243,000
		찬 조 비	1,000,000
		잡 비	750,000
		대중보인쇄비	1,700,000
		예 비 비	-
		차 기 이 월	82,702,117
총 계	128,708,137	총 계	128,708,137

3/4분기 중무위원회 개최

2005년도 수지결산 및 2006년도 예산 심의

10월 14일, 2005년도 총회 준비를 위한 중무위원회가 만녕 회장 초청으로 서울시 태평로 1가에 위치한 프레스 센터 19층 국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먼저 장학금 기금 모금 목표액인 3억 원에 달하리라 본다고 전제하고 일차적으로 목표액이 이루어지면 장학금 모금 위원회는 대지를 확보해서 회

관 건립을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장학금 모금 및 화관 건립을 병행하여 나가 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도 수지결산 과 2006년도 예산 심의를 비롯한 임원 운영비 납부 및 장학금 모금 현황에 대한 철형 재무담당역의 설명이 있었다. 또한 2005년 일 년간 각 문중을 위

해 위선사업 등에 공적이 있는 일가들에 대한 표창 문제를 논의하였다.

한편 청장년회의 노령화에 따른 운영 문제가 있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 년 간 위선 및 효행 등의 공적이 있는 일가들에 대한 추천심의회 총회 행사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05년 신년하례회 개최

문중내력 알기에 참석일가 경칭

병덕 부회장 강연 등 다채롭게 진행

청장년회(회장:범탁) 주최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2005 을유년 신년하례회'가 지난 1월15일 한국 프레스 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이날 만녕 대종회 회장을 비롯한 병길 대종회 고문과 한구, 학구, 영범 대종회 부회장 등 임원과 청장년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녕씨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하례회는 범탁 청장년회장의 인사와 만녕 회장의 격려사, 그리고 병덕 대종회 부회장의 문중 내력에 대한 이야기의 강연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병덕 부회장은 집안 선조들의 행장과 그동안 대종회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과정 이야기를 하여 흥미롭게 경청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일가간의 상견례와 1월 18일부로 44회 사법고시에 합격(2002년도)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성범(창무 대종회 감사 장남)군과 지영

(승구 전 과기부 차관 으며, 지영양은 수석으로 장녀)양의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성범군은 외지청 관사로 근무 중이 교통산부에 발령을 받았다.



신년하례회(1. 15)가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병덕 부회장의 문중 내력에 대해 강연이 있었다.



회장에 찬 신년의 새해인사를 하고 있는 만녕 대종회장. 앞줄 오른쪽부터 학구, 병길, 영범, 태녕 대종회 고문 및 임원들



신년하례회(1. 15)에 참석한 우봉이씨 며느리들이 자리를 같이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감찰공묘소 낙엽치우기 행사가 지난 3월 5일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앞줄 오른쪽부터 병수, 현녕, 덕녕, 준녕, 상구, 뒷줄 왼쪽부터 병태, 무준, 학구, 한구, 병준, 건녕, 중무 일가

동녕 선생 흉상 제막식 거행

문경시가 주관하여 건립

문경시(시장:박인원)에서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문경시민 체육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마라톤 경기로 1위를 차지하는 선수에게는 서봉기(瑞鳳旗)가 수여 된다. 이 서봉기는 우봉이씨 대종회장을 지낸 이동녕(1875~1983) 전 봉명그룹 회장의 아호를 따서

제작된 우승기이다. 특히 2004년 11월 10일에는 마라톤경기가 끝난 후 서봉기 수상과 함께 전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을 문경시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서봉 선생의 업적을 기려 문경시가 제작한 이동녕 선생 흉상 제막식이 있었다.(글:사진 촬영 전문위원 제공)



2004. 11. 10 문경시 시민운동장에서 문경발전에 공적이 많은 서봉 이동녕 전 대종회 회장에 대한 흉상제막식이 문경시 주최로 개최되었다.(사진제공 창무 대종회 전문위원)



이동녕 선생 흉상제막식에서 세무 대종회고문(서봉 장남)이 답사를 하였다.(사진: 창녕 전문위원 제공)

병무 대종회 부회장 연세대 동문회장에 재임



연세대 학교 동문회는 지난 6월 13일 동문회관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제25대 연세대 학교 동문회장으로 이세아 시멘트(주) 병무 회장을 재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계·시·판

동정 ▲2004년도이동녕 선생 흉상 제막식(10.10) 문경시 시민운동장 ▲2004년도 送年 회담 및 종무위원회 회의개최(2004. 12. 15) 대종회 사무실 ▲丙天(대종회 종무위원)11.12 출판기념회 세종문화회관 회장 참석 ▲11. 10. 12:00 서봉 이동녕 전 명예회장 흉상 제막식 문경시 시민운동장 ▲대종회 총회(11.12) 전경기념관 무궁화 홀 11:00 ▲2005년 乙酉 新年賀禮會 1. 15(토) 푸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참석일자. 학구, 병준, 철형, 종무, 승무, 병태, 건녕, 만녕, 병수, 용무, 병호, 방무, 수녕, 병길, 병태, 승무, 현무, 남녕, 태녕, 인녕, 영법, 한구, 병천, 문녕, 기연, 병남, 민녕, 병호, 병수, 창무, 훈구, 병준, 박탁, 재무, 태녕, 무준, 선녕, 덕녕, 길웅, 창무, 도녕, 병덕, 태녕. ▲청장년회(회장:範卓) 승년 및 임원회의(12. 3. 15(토) 대번(일식집)국제전자센터 동쪽(남부터미널) ▲昌茂(대종회 감사) 장남(성법)1. 17사법연수원 수료. 외무통상부 근무 ▲昇九(전 과학기술부 차관)장녀(지영)1. 17 사법연수원 수석으로 수료. 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청 판사 ▲昌寧(감찰공문중)장남(무일) 서울대학교 자연환경학 계열 합격 ▲海雲(대사간공문중)계대 확인차 내방 ▲丙權(부사공 문중)계대확인차 내방(1. 31) ▲丙朝(대종회 지문위원)인사차 내방(3. 2) ▲감찰공 문중 3. 5 대종회 부회장 겸 감찰공요소 치산 위원장(한구) 낙엽치우기 행사를 개최 참석한 일가는 한구, 학구, 상구, 병태, 병준, 병수, 건녕, 현녕, 준녕, 덕녕, 무준 ▲丙賢(감찰공 문중)대종회 종무위원 임명(3. 24) ▲3. 29 1/4분기 종무위원회의 개최 ▲炳國(감찰공 문중·한국산업은행 차장)인사차 내방(2.

15) ▲民寧(주)자라다 대표이사인사차 내방 ▲盧齋公(世銘·14세)문중(회장:병국)3월 18~19일 경기도 남양주시 차 내방 ▲漢九(대종회 부회장)감찰공요소 낙엽치우기 행사개최(3. 5) ▲청장년회(회장 범탁) 상반기 회의(4. 6) 안건 우선공(尙迪)요소 참배(4. 23) 및 일장 및 선조 묘소 순례행사건 토의 용인 타우공, 일휴정, 도양, 농재공 묘소(5월14일) ▲만녕(대종회 회장)홍릉지역 출장(4. 13~17) 및 대안 출장(10. 4~10. 20). ▲丙天(대종회 부회장)牛崗書藝研究院 개설(舊 尙德書法會를 개칭 이전) 서울 종로구58-1 종로 오피스텔 1302호 ▲낙엽치우기 행사 3. 5. 대종회 부회장 겸 감찰공요소 치산 위원장(한구) 낙엽치우기 행사를 개최.참석한 일가는 한구, 학구, 상구, 병태, 병준, 병수, 건녕, 현녕, 준녕, 덕녕, 무준 ▲종무위원회 3. 29 1/4분기 종무위원회 개최 ▲농재공 종중 세보 재인쇄 재요청(4. 22) ▲우선공(尙迪)묘소 참배(4. 23)참석일자 범탁(회장), 병수, 도녕, 강호, 병철, 용법, 무준, 선녕. ▲秉九(남가좌동)인사차 내방) ▲惠寧(감찰공문중)대종회 방문 인사차 사단법인 전국농협 종도메인 연합회 전무 인사차 내방 ▲範卓(청장년회장)9. 14 (주)삼보 엔지니어링 회장 취임 ▲健茂(중앙박물관장)10월 28일 용산에 중앙박물관 개관. 10월 19일 언론에 공개. 유물139점 특별전시, 연말까지 무료 입장 **결혼** 2004년 ▲振衡(종무위원)장남 顯茂군(신부 변혜성 양)강남J타워 1층 한강홀(11.17 13:00) ▲德寧(종무위원)차남 종무군(신부:이성표씨 장녀 유리양)서울교 육 문화회관 1층 한강홀(11. 21. 13:00) ▲宗茂(대종회 기획담당역)장남 範根군(신

부 윤재원양)(12. 11. 15:30분) 리버사이드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결혼식 ▲2005년 茂俊(청장년회 총무) 장남 영주군(신부 유재희양) 결혼식(2월20일 오후1시)강남 웨이딩문화원 1층 아모르 홀에서 결혼식 ▲남녕(청장년회) 3월 26일 13:00 장녀 윤미양(신랑 최충갑씨 차남 최환근)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웨딩의전당 모나크에서 결혼식 거행 ▲丙鏞(종무위원·JDC TECH(주) 사장)차남 찬녕 군·신부(유순욱 양)결혼식(4. 16. 17:00)공화터미널 3층 예식장 ▲丙龍(대종회 종무위원)장남 재국군(신부 숙희양)6월 17일 사당동 그랜드 홀 예식장 ▲丙秀(대종회 종무 담당역)2남 조녕군(신부·황수진씨 장녀 보미양)9월 24일 13:30(토)스카이스티 컨벤션 센터 서관 **부고** 2005년 ▲漢九(대종회 부회장)자당(順興 安順禮)발세(1월 23일)신촌 세불란스병원 영안실 발인(1. 25. 08:00)장지 용인시 선영 ▲昇寧(대종회 전문위원)2월 8일 발세 발인 12일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영안실 상주永茂(한양대학교 교수), 寅茂(고려대학교 교수), 昌淑(성신여자대학교 교수), 瑾淑, 惠淑, 장지 연기군 전의면관 정리 선영 ▲先寧(청장년회 부회회장) 모친상(4.4)서울구로 성심병원 영안실 발인 4월 6일 장지 국립 현충원(대전) ▲丙秀(대종회 종무위원)부친 남구씨 발세(5. 26)대리 성심병원 영안실 ▲淸寧(대종회 전문위원) 모친상(9. 3)중앙의료원 영안실 301호 발인 9월 5일 ▲昌茂(대종회 감사) 光茂, 翊子(裴成源), 모친상(淸寧順)9월27일 순천향 의대부속병원 영안실 2층 5호.발인 9월 29일 07:00 장지 천안시 안처동산 선산.

고승덕 변호사 덕형(감찰공문중)씨 장녀 무경씨와 결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은 최근 유명 인사로 널리 알려진 고승덕(高承德) 변호사가 펴낸 수필집으로 인기 절정에 있는 수필집 제목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고승덕 변호사가 감찰공문중 덕형(惠衡 감찰공문중)일가의 2남 2녀중 장녀인 무경(戊敬)씨와 결혼하여 우봉이씨 사위가 되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고승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중 사법고시 최연소자합격을 비롯하여 외무고시 차석 및 행정고시 수석등 3관왕이라는 기록을 낸 수

재로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미 Harvard Law School, Yale Law School 에서 법학박사와 Columbia Law School J.D 우등졸업, 경력은 수원지방법원 판사, New York, New Jersey, Illinois, Washington, D.C 변호사자격획득, Law Firm(B&M)근무.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시와 8개 구청 법률고문, 조달청,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찰청 법률자문위원, 공무원연금공단 법률고문, 탐라대학교 강사, 세무사 및 변리사로 활약 중이다. 한편 신부 무경양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로 현재 경향신문 기자로 있다.

명절 제사의 뜻

벌써 음력 8월 8일 추석이 돌아 왔습니다.

옛날에는 명절이 가까워 오면 어느 집 할 것 없이 마음이 바쁘고,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었습니다. 지금도 신경 쓰이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

다마는 그래도 요새는 워낙 물자가 풍부해서 치른 쌀을 가지고 제사를 모시는 집은 없잖아요?
옛날 아이들은 어른들 마 음이야 인종에도 없이 마을이 풍선 마냥 부풀게 마련이었지요. 조상 덕(祖上)에 이바지라고 가난한 집안이라도 명절에는 깨끗한 음식과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고 먹을 것들이 많았으니 배고픈 시절(時節)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좋은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거리가 차고 넘치니 명절이든 아니든 먹는 것에 대한 기억은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명절 제사는 기제(忌祭)와는 다르게 아침에 모시기 때문에 전 식물이 참여하므로, 송조(崇祖) 정신을 고취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례의식(祭禮儀式)은 크게 보아서 주자가례와 조신조에 와서 도암 이체에 의해 다시 제정된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모든 관혼상제(冠婚喪祭)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나, 朝鮮時代를 거치면서 각 당파(黨派)에 의해 조금씩 왜곡된 것이, 전통 제례인양 인식되어서 그 본래의 근본 취지가 많이 탈색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흥동백서(紅東白西) 좌포우혜 등의 이야기가 그 것입니다. 확실한 제례의식을 모르는 사람은 가가예문(家家禮文)이란 미명아래 나름대로 상을 차리고 진설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모셔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요즘에 와서는 세대(世態)가 변했다고 해서 명절(名節) 제사(추석, 설)를 휴가(休暇)를 가서 휴양지(休養地)에서 제공하는 규격화(規格化)된 제수상(祭需床)이 새로운 상품(商品)으로 대단한 인기와 비싼 값으로 팔린다 하니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제사를 모시던 옛 조상님들의 자세와는 너무나 먼 거리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지상에 소개되는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정신(精神)은 퇴폐해 가는 진한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존경(尊敬)과 감사(感謝)의 표시로서, 조상의 영혼(靈魂)에 음식을 진설하여, 자손(子孫)으로써 정성(精誠)을 표하는 예절인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목욕 제제하고 정성(精誠)을 다해 제사를 모셨는데 요즘에 와서는 한갓 귀찮은 생각으로 세수도 하지 않고, 조상님 영전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볼 일입니다.

허운 이창녕

서인(庶人)도 시속(時俗)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후손(後孫)들이 나태(懶怠)하고 피폐한 정신으로 제사를 모신다면 웬지 조상 님에게 죄스러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 없는 자손이 있을 리 없고 부모 없는 자식이 존재 할 리 없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망각(妄覺)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찮은 동물인, 개, 고양이도 족보(族譜)를 찾고 혈통(血統)을 중시(重視)하는데... 시대가 바뀌고 생활 환경이 변함에 따라, 봉제의 범위는 제례(祭禮)의 근본 정신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고(再考)의 여지(餘地)는 있을 수 있지만, 제사를 모시는 근본 정신과 자손(子孫)들의 마음가짐은 예나 오늘이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사는 미풍양속(美風良俗)의 의미를 넘어서 조상과의 만남이며, 뿌리를 찾는 몸짓이며, 보은(報恩)의 도리(道理)이며,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숭고(崇高)한 정신이며, 효(孝)의 극치(克治)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족(親族)의 화목을 이루고 개인적(個人的)으로는 엄숙한 의례(儀禮)를 올리는 데서 성(誠)과 (경)과 (신)의 덕목(德目)을 기리는 인격(人格) 형성(形成)의 교육(教育)의 장(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대중회 자문위원 문경시 용흥초등학교 교장)



시

蘭 詩

相 範

매 안 물은
그대로
래초의 숨결
그대로

신의 입김
그대로
자연에 내 맡긴
그대로

뻗어서
자랑도 아닌
매안 물은
그대로

중요약력: 李相範 충북 진천에서 출생. 문공부·예총주최 제3회 신인예술상 수상(水河史)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조부문 「日蝕圖」 당선(1965년). 시조집 「日蝕圖」(1967년)의 14집 발간.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1989년). 펜클럽 한국본부 이사(1995년). '99한가람 시조 문학상 수상(1998년).



株式會社 光 一
KWANG IL CO.,LTD.

代表理事 會長 李 萬 寧

본 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112-2
Head Office : #112-2, Hankang Ro 2 Ga,
YongSan-Ku, Seoul Korea
TEL : 02)796-0321~4, 797-0321~3
FAX : 02)796-0325

부산사무소 : 부산시 남구 문현4동 815 한일오피스텔 1411호
TEL : 051)645-0321~2 FAX : 051)632-0323
아산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226
TEL : 041)542-2555~7 FAX : 041)542-2558
Homepage : www.Kwangil.co.kr